

총학생회/서울2017

총학생회

- 명칭 : 한마디
- 주요 공약 : 기숙사 건립, 등록금 인하, 정치참여, 현장 총학생회, HELP 폐지
- 2017.12. 4 제46회 총학생회 선거결과 구성 실패^[1]. 투표율 36.5%로 50%미만 투표율일 경우 학생회칙에 따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게 되어 6년만에 총학생회 구성이 되지 않음.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투표율이 35.17%였고, 하루 연장하여 진행했음에도 투표율 50%를 넘지 못한 것. 더불어 총여학생회 선거도 42.42%로 무산 됨. 공약 등의 문제로 총여 폐지운동이 진행되기도.

총학생회에 바라는 것은?

뉴스H에서 앙케이트 실시^[2]

- 일시 : 2017년 11월 30일 ~ 12월 1일
- 장소 : 서울캠퍼스
- 항목 : ▲등록금,입학금 ▲문화(축제 등) ▲수업(HELP) ▲안전(지진 등) ▲기숙사 ▲기타 총 6개 항목(2016년부터 종종 공론화됐던 내용들을 위주로 선별)
- 참여인원 : 66명
- 내용 :

1. 앙케이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항목은 '수업'이다. 특히, 지난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된 HELP 교과목에 대한 해결을 많은 학생이 바랐다.
2. 두 번째 선택 항목은 '등록금, 입학금'이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이공계열 재학생들은 총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등록금 이슈에 대해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3. 세 번째로 선택된 항목은 경제적 문제에 기반했다. ▲기숙사 항목에 체크한 응답자들은 신축 기숙사 문제가 주변 주민들과의 의견 차도 얽힌 만큼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4. '문화' 항목, 완성도 높은 축제 요구.
5. '안전' 항목, 지진 등의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며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6. [↑ \[SBS\] 한양대, 6년 만에 총학생회 구성 실패...투표율 36.5%](#)
7. [↑ “저는 총학생회가 OO을 해결했으면 해요.”](#)